

국내 제지산업의 수급 현황 및 예측

이 상 문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전무

1. 개 황

한국이 근대적 제지설비를 이용한 제지산업을 시작한 지도 1세기가 넘었다. 그러나 일제 침략기는 물론 한국전쟁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한국의 제지산업은 소수의 지식인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 공급에 국한되어 수급이 이루어져 왔으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에 의해 지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급속한 문화용지의 수요가 성장세를 나타냈다. 게다가 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산업용지의 수요도 늘어남으로써, 한국의 제지산업은 비로소 본궤도에 진입하여 70년대 초반에는 완전 자급은 물론 일부 생산물량을 수출하는 형태를 갖추었으며, 90년대에 들어선 뒤에는 개방된 중국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산업으로서도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2. 과거 수급(수요) 추이

한국의 현대적 제지산업의 역사를 수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전쟁이 끝난 뒤부터 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53년-54년은 극히 불안정한 시기였던 관계로 통계의 신빙성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므로, 55년을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에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소비증가율을 전기비로 나타내었다.

55-60년까지는 지류가 극히 기초적인 문화소재로만 사용되던 시절이고,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IMF 관리 체제였기 때문에 제외된 뒤에, 그 변화를 5년 단위로 살펴보면 55년-65년까지

표 1. 국내 지류소비 증가율 변화

기 간	소비증가율 (전기비)	연평균지류소비 증가율 (%)
55년-60년	1.06배	---
61년-65년	1.48배	11.06
66년-70년	2.86배	18.85
71년-75년	1.81배	11.89
76년-80년	2.38배	14.91
81년-85년	1.48배	9.64
86년-90년	1.90배	13.28
91년-95년	1.49배	7.18
96년-2000년	1.11배	---

는 1.5배 미만이지만 66년-80년까지는 2.3배 2.8배까지 커졌다가 81년-95년까지는 1.4배 1.9배까지 작아졌음을 볼 수 있다.

5년 단위로 연평균 지류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배수 증가율에서처럼 선명하지는 않아도 동일한 추세를 볼 수 있다. 배수 증가율의 변화 단위인 55-65년까지는 11%대이고 66년-80년까지는 15%대 이상이고(73년 오일쇼크 감안), 81년-95년까지는 13%-7%대로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류 수요는 66-80년을 고비로 차차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지류 수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1인당 GDP와 1인당 지류소비량이 앞서 있는 일본, 미국 등의 실적을 선행지수로 보고 이를 감안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밖에도 한국 제지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적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수급전망

일본의 경우 GDP 1만 달러 수준의 시점은 79년-80년 기간이었다. 이 시점의 일본의 지류 생산량 및 소비는 연평균 4-5%대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지류소비량은 150 kg대였다. 미국의 경우 GDP 1만 달러 수준인 시점은 76년-77년에 해당된다. 이 시점의 지류 생산 및 소비는 연평균 1%대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지류소비량은 260-270 kg대였다. 이들 두 나라는 현재 1인당 GDP 3.2-3.4만 달러로 같은 수준이나, GDP 1만 달러 시기는 미국이 2-3년 빨랐다. 또 이들 두 나라의 지류의 생산·소비 증가율은 일본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지류 소비량은 일본이 미국의 약 60% 수준이다.

이들 두 나라의 여러 가지 실적 중 한국과 유사한 실적은 일본의 1인당 지류소비량이다. 즉, 한국의 97년-2000년 1인당 소비량과 일본의 20년 전(79-80년)의 지류소비량이 150 kg대로 같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의 지류 총 생산량은 16백만-17백만 톤으로 한국의 2배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류 수요(내수=국산+수입) 전망은 일본의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에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GDP 1만 달러 시기가 지난 80년대 후반의 연간 생산·수요 증가율을 살펴보면 7%대로 상승하였다가 90년대 0%대로 떨어졌다. 여기서 88년부터 불어닥친 일본의 거품 경제 후유증이 90년 이후 크게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2000년대의 초반인 2001-2010년의 연평균 수요증가는 10-7%대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4. 국내 제지산업과 수급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변수-

4.1 수출

출하량비 수출 비중을 보면 73년 당시에는 7%(16천 톤)에 불과했으나, 80년에는 9%(154천 톤)로 소폭 증가했으며, 90년에는 11%(483천

톤), 95년 15%(994천 톤), 96년 18%(1,384천 톤), 97년 25%(2,076천 톤), 98년 36%(2,766천 톤)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를 지종별로 볼 때, 백판지는 수출 비중이 95년에 47%였으나 96년부터 50%(실제 55%)를 넘어선 뒤 계속 증가되어 98년에는 63%에 달하고 있다. 인쇄용지 중 아트지의 경우 95년에 41%였으나, 97년에 50%(실제 57%)를 넘어섰고, 98년에는 무려 76%에 이르고 있으며, 신문용지의 경우도 97년에 18%, 98년에 48%에 달했다. 이후 수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90년에 11%(483천 톤), 95년 15%(994천 톤), 97년 25%(2,067천 톤), 98년 36%(2,766천 톤)으로 계속 증가했다.

신문용지는 중국(홍콩차이나 포함) 의존도가 16.5%에 불과하지만, 인쇄용지(아트지)는 62.7%, 백판지는 79.1%이다. 이러한 상태를 언제까지 지속시킬 수 있을지, 또 중국의 자급체제가 갖춰지는 속도와 기간에 따라서 한국의 지류 수출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4.2 관세장벽 제거 - 수입

한국은 APEC과 WTO 회원국이다. APEC의 경우 97년 10월에 개최된 뱅쿠버 총회에서 무역 거래 대상 41개 분야 중에 조기 개방(관세 0%) 대상으로 임산물(필프·제지포함) 등 15개 분야를 선정하였고, 15개 분야 속에서도 임산물이 포함된 9개 분야(환경제품 및 서비스, 수산물, 임산물, 의료장비, 통신분야상호, 에너지, 완구, 보석, 화학)를 2002년 1월 1일부터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94년 정부에서 WTO 사무국에 제출하여 심의 통과된 내용에 의하면, 극히 특별한 분야를 제외한 전분야를 2004년 1월 1일부터 완전개방(관세 0%)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건대 APEC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98년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악화된 경제 상황을 들어 이의를 제기해 놓았기 때문에, 1-2년 유예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WTO의 경우는 유예의 조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세장벽이 제거될 경우, 국제 경쟁력이 취약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류를 생산하는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4.3 전자 미디어

모든 문서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표시되는 종이 없는 디지털 사무실의 개념은 70년대 초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론상으로 실현단계에 와 있다. 빠르면서 간편하고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컴퓨터들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종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98년 세계 지류 생산량은 3억 톤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인쇄용지류는 9천만 톤에 이르렀으며, 사무용지 사용량은 1,10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5%가 성장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자 미디어와 종이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비관론자도 있긴 하지만 공존할 것으로 보는 편이 우세하다. Xerox社의 종이 담당 수석 엔지니어인 George Treier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즉,

- 종이를 대체할 만한 기술적으로 우세한 전자적 디스플레이가 없다.
- 하드의 크기, 전력 소모량, 생산비, 눈의 피로도, 휴대 편의성 등.
- 가격저렴(전송비용), 이용범위.
- 종이는 느끼는 것보다 훨씬 깊숙이 우리 생활에 개입되어 있다.
- 전자매체의 단기적 변화 속도에 대한 과대평가.
- 66년 ARPA Net의 창시자이자 미 국방성 공동연구소의 Bob Taylor는 이 Network이 80년까지는 오늘날의 인터넷과 같이 꽤 발달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처리에 의해 촉발된 정보의 폭발은 종

이 없는 사무실의 시작을 방해 - 문서의 인쇄 비율은 낮아졌으나, 문서 종류는 늘어났다.

- 종이 없는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집단의 오해.
- 종이 없는 사무실이 가능한 하지만, 고객·공급자·관련처 등과 관계하는 동안 종이의 사용이 불가피함.

5. 결 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제지산업은 2004년 1월 1일 WTO의 개방 프로그램의 실시시점부터 4-5년 동안은 혼란기와 조절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두고 유추해 볼 때 신문용지의 경우는 변화가 없는 지종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백판지의 경우도 제품의 특성상 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쇄용지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의해서, 골판지 원지와 크라프트지는 미국과 캐나다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존립을 위협하는 도전은 되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한국 제지산업의 상황을 정리하여 체질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비록 한국은 제지산업의 후발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9위의 지류 생산국이며, 제조회가관리상의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그 결과 한국 10대 수출 품목(17억 \$)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제지업체와 제지기술인의 「숨씨」가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다. 「숨씨」는 이론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랜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숨씨는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원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